

경찰과 함께 뛰는 아이들... '새 선도 모델' 뜬다

■ 광주 남부경찰 'SPOTLIGHT' 가보니

학교전담경찰관·학생·학부모·교사, 5km구간 러닝

단속 아닌 동행으로 만드는 전국 첫 '러닝 예방치안'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 광주 남부경찰서 앞 마당에 힙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경찰관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0여명은 폭염이 채 가시지 않은 저녁 시간, 함께 스트레칭을 마친 뒤 발걸음을 맞췄다.

목적지는 범죄 취약지역. 하지만 이날 현장은 '순찰'보다 '러닝크루'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광주 남부경찰서가 여름방학을 맞아 운영 중인 'SPOTLIGHT'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청소년이 함께 달리며 통학로와 범죄 취약지역을 살피고,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전국 최초의 '러닝 예

방치안' 프로그램이다. 범죄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범죄 이전에 관계를 형성해 청소년을 선도하는 새로운 예방치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찰서를 출발해 방림터널과 실월여고, 용산자구를 거쳐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는 약 5km 구간을 달렸다. 학생들이 평소 등하교 시간에 이용하지만 밤에는 인적이 드물고 조명이 부족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들이 코스에 포함됐다.

경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달렸다. 구간마다 충분한 휴식시간도 마련했다. 참가자들에게 생수와 음료를 제공했고 응급상황에 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경찰관 등이 코스를 따라 달려가고 있다.

한 지원자량도 함께 운영했다.

달리는 동안 학생들은 경찰관과 학교생활, 진로 고민, 친구 관계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먼저 말을 건네고 웃음을 보였다. 경찰 역시 훈계하거나 교육하기보다 또래 러닝크루처럼 함께 뛰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집중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동현 광주 남부경

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 경위는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 보면 대부분 누군가의 관심과 공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찰과 함께 뛰고 대화하는 시간만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친구들과 놀다가도 ‘오늘은 경찰관과 약속이 있다’며 먼저 참여할 정도로 자발성이 높다”며 “달리기를 통

해 체력 증진은 물론 정서적인 어려움과 학교생활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듣게 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부경찰은 지난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여름방학부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며, 학교 추천 학생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청한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남구는 물론 다른 자치구 학생들의 문의도 이어질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범 운영부터 빠짐없이 참여한 학부모 허민경씨(46)는 “경찰을 멀게만 느꼈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이야기를 건넬 정도로 달라졌다”며 “학생들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관들이 실제 사례와 법률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니 부모 입장에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아들 박지민(15)군도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스스로 절제하는 습관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껴져 앞으로는 마라톤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남부경찰은 앞으로 프로그램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대학 운동장과 지역 러닝 명소 등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러닝 유니폼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러닝 거리도 점차 늘려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운동 후 간식을 함께 먹으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현 경위는 “청소년을 범죄 이후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이전에 친구처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방치안”이라며 “SPOTLIGHT가 청소년 선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임재용 기자 djawody0316@

5·18 여성사 재조명돼야...민주주의 과제는 '정청'

가두방송·현혈·시신수습 등 항쟁 주체...역사에선 소외
젠더폭력 피해 치유·배상 미흡...역할·증언 재평가 필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역할과 경험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화의 주체였던 여성들이 역사 서술에서는 주변부로 밀려났고,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역시 충분한 치유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여성들의 증언을 공동의 역사로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현애 전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은 6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 '2026 5·18 아카데미'에서 '민중의 햇볕이 된 어머니'를 주제로 발표하며 "5·18의 여성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또 다른 주역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이사장은 이날 오월어머니 배지를 들어 보이며 "40여 년 만에 제작된 이 배지는 홍성담 화백의 판화 '햇볕 행진'을 형상화한 것으로, 햇볕을 든 여성의 모습에는 희생과 나눔, 비폭력, 대동성상이라는 5·18 정신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 5월 여성들은 가두투쟁과 가두방송, 현혈, 시위 안내, 식사 지원, 시신 수습, 성명서 작성 등 항쟁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며 "송백희 등 진보적 여성단체는 이후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데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당시 여성 12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여 명이 구속·수배돼 상무대와 광산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감됐다"며 여성들 역시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음을 강조했다.

항쟁 이후에도 여성들의 활동은 계속됐다.

정 전 이사장은 "1981년 전두환이 영광 원자력발전소 기공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구속자 가족들은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차량을 막아섰다"며 "탄원과 재판 투쟁, 진상규명 운동을 이어나 이들이 바로 오월 어머니들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오월어머니집은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 싸워온 여성들의 삶을 돌보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초대 안성례 관장은 5·18 당시 부상자를 치료하고 이후 구속자가 족협회의를 이끌며 진상규명과 오월어머니집 설립을 위해 헌신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두 번째 발표에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성들의 경험이 역사 속에서 충분히 기록되지 못한 현실이 지적됐다.

송혜림 연세대 비교문학 박사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과제: 여성 증언과 역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1987년 민주화는 제도적으로 완성됐지만 5·18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역사에 담아내는 민주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영화 '꽃잎'을 사례로 들며 역사적 사건의 생존자인 여성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말하기 어려운 현실과, 이를 주변인이 대신 서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5·18 서사는 시민군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여성들은 '주먹밥을 만든 어머니'나 '희생자 가족' 정도로만 재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실제 여성들은 가두방송과 시위, 유인물 제작, 현혈 등 항쟁의 핵심 주체였음에도 초기 기록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송 박사는 "1988년 공개 증언이 있었지만 국가의 부인과 지역사회의 낙인 때문에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8년 김선옥 씨의 공개 증언 이후 특별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졌지만 피해 회복과 치유, 배상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피해자에게 먼저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며 "여성과 젠더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공동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화 이후 우리가 완성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독서 삼매경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책을 보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주말까지 전남광주 '펄펄'... 낮 최고기온 39도

내일 내륙 5~40mm 소나기...열대야도 지속

주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설시에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무더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보됐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중첩되면서 이번 주말까지 강한 폭염이 지속되겠다.

여기에 제1호 태풍 '돌핀(DOLPHIN)'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백두대간 서쪽에 위치한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기온이 더욱 크게 오르는 곳이 있겠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까지 아침 최저기온은 21~29도, 낮 최고기온은 26~39도로 평년(아침 21~25도·낮 29~32도)을 크게 웃돌겠다.

8일 오후에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mm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더위가 크게 식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

적으로 햇볕이 가려지더라도 높은 습도와 지면에 축적된 열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매우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이다.

폭염특보는 현재의 중대경보·경보 단계에서 일부 지역이 주의보 수준으로 완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더위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글로벌